

KIA 타이거즈 복덩이 '김민우'

“호랑이 변신... 신인자세로 뛰고 또 뛴니다”



음주로 떠난 그라운드 2차 드래프트서 기사회생

15일 한화전 승 발판...1·2·3루 멀티 수비 맹활약

KIA 타이거즈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 1·2·3루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 내야수 김민우의 이야기다. 지난 15일에는 허리에 담이 온 김선빈을 대신해 2009년 5월30일 이후 처음으로 유격수로 선발 출전도 했다. 공격에서도 알토란 같다. 15일 한화전을 상대로 한 KIA의 첫 끝내기 승에도 김민우가 있었다. 4-4로 맞선 9회말 대타 이종환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민우의 타석이 돌아왔다.

보내기 번트 임무를 받고 타석에 선 김민우에게 볼 두 개가 연달아 들어왔다. 그러

자 KIA의 계산에도 변화가 있었다. 번트 대신 강공으로 전환한 김민우는 우전 안타로 대주자로 들어간 강한울을 3루로 보냈다. 이 안타가 발판이 돼 KIA는 김선빈의 밀어내기 불넷으로 승리를 챙겼다.

김민우는 “몸이 알아서 반응을 했다. 땅으로 강하게 치자는 생각으로 스윙을 했는데 안타가 됐다”며 “안타가 나올 때마다 좋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기본 좋은 김민우. 김민우가 있어서 기본 좋은 KIA이기도 하다. 공·수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는 베이스까지 전력질주를 하면서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에 따른 작

전 수행능력도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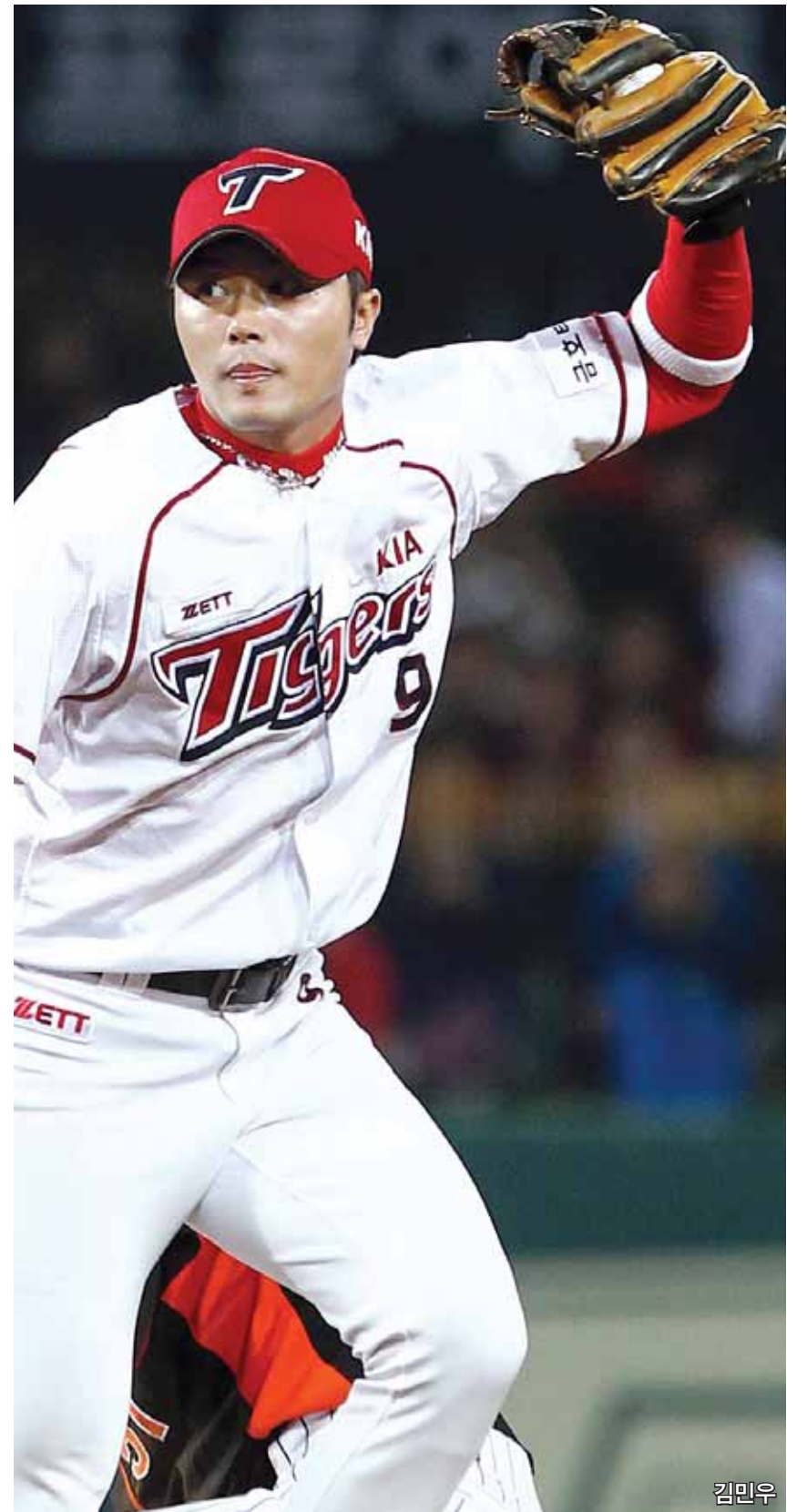
복덩이가 된 김민우의 슬직한 고백은 “이런 선수가 아니었다”이다.

아마 시절 전체 선수로 통했던 김민우. 경험도 쌓일 만큼 쌓인 35살의 고참. 그런 그가 공 하나하나에 신인처럼 달리고 있다. 인생일대의 큰 실수가 그라운드에 절실함을 뿌렸다. 김민우는 지난 시즌 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으며 그라운드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KIA의 선택을 받으며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큰 실수였고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있다.

김민우는 “KIA에 감사한 마음이다. 나는 큰 기회를 받았다. 나를 선택해주셨다. 나를 영입하기 위해 2억이라는 돈을 쓴 것이다. 또 넥센에서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내가 미웠으면 (2차 드래프트 때) 명단에 내 이름을 묶어뒀을 것이다. 기회를 주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렵게 돌아온 곳기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다려진다. 눈을 뜨면 경기장으로 달려와 하루를 준비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민우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이 나이에 이런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몸으로 막자는 생각으로 수비를 나가고 있다”며 “내 목표는 전혀 없다. 100%의 나를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도록 준비를 하자는 마음이다. 부상만 안당하고 팀의 빈틈을 메운다는 생각이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민우

덕아웃 특·특·특

▲“찢으면 만루 홈런이죠.”

연차만큼 김선빈의 능청도 늘었다. 16일 훈련을 하러 나가던 7년차 김선빈에게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 “취는 날 담이 와서 스윙도 못하고 밀어내기 불넷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김선빈은 15일 허리에 담 증세를 보이며 스타팅 멤버에서 빠졌다.

훈련을 하다 입은 부상이 아니라 휴식날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근육이 놀라면서 입은 ‘황당한 부상’. 어제 왔든 김선빈은 8회 필의 대주자로 들어간 뒤 4-4로 맞선 9회 1

긴장한 한승혁 보던 선감독 “청량고추라도 먹어야겠어”

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섰다. 한화 마무리 김혁민이 볼을 남발하면서 이렇다할 스윙을 할 필요도 없이 불넷으로 끝내기 타점을 만들었다.

경기가 끝난 후 “쓰리볼에서 스윙을 하고 싶었는데 기다려라는 사인이 나왔다”고 머쓱하게 웃던 김선빈이었다. 이 해설위원의 농담에도 김선빈은 씩씩했다. “찢으면 만루 홈런이었다”고 웃으며 김선빈은 베팅 훈련을 시작했다.

▲“청량 고추라도 먹어야겠어.”

“청량 고추라도 먹어야겠다”던 선동열 감독이 15일 웃으며 한승혁을 얘기했다. 선 감독은 지난 15일 한승혁을 한화전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프로 4년차의 한승혁에게는 첫 선발 등판이었다. 팔꿈치 수술로 입단 첫째 경기를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3년 만에 찾아온 선발 기회. 선 감독은 21살의 어린 선수가 긴장하지 말고 공을 던졌으면 하는 바람에 청량 고추라도 먹어서 내

보내야겠다는 농담을 했다. 그러나 선 감독의 격정과 달리 한승혁은 침착했다. 5이닝 1실점의 호투. 한화 타자들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8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승리투수 요건도 갖췄지만 승은 따르지 않았다. 2-1로 앞선 7회 팀이 역전을 당하면서 날아간 승리. 그러나 팀은 위기 상황에 투입된 어린 투수의 활약 속에 KIA 끝내기 승을 거둘 수 있었다.



‘추신수의 날’

이벤트 데이 맞아 시애틀전 안타·호수비 선물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만에 안타를 치고 타격 감각을 쏙올렸다.

추신수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타율과 출루율은 각각 0.286(49타수 14안타), 0.429로 내려갔다.

텍사스는 왼손 선발 투수 로비 로스의 빠른 역투와 2회 터진 프린스 필더, 케빈 쿠즈머노프의 연속타자 솔로 홈런 등을 묶어 5-0으로 완승했다.

텍사스 구단은 시즌 첫 이벤트데이인 이날 추신수의 이름과 등번호(17번)가 박힌 붉은색 티셔츠 1만5천장을 팬들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했다. 또 탤러스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 응원단 1천명이 좌익수 뒤쪽 자리에 모여 앉아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를 힘차게 응원했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시애틀 우완 선발 블레이크 비번의 낮은 직구를 퍼올려 좌중간으로 큼직한 타구를 날렸으나 워닝트랙 근처에서 중견수에게 잡혔다.

2-0으로 앞선 3회 무사 1루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비번의 초구 직구를 공

략해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한인 응원단에 선사했다. 하지만 후속 엘비스 안드루스의 땅볼 타구가 상대 유격수의 글러브에 뒹긴 뒤 2루수 로빈슨 카노의 글러브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병살타가 되면서 추신수는 2루에서 아웃됐다.

추신수는 빠른 볼에 대한 공략 타이밍을 서서히 찾아가 다음 경기에서 멀티안타에 대한 기대감을 안겼다. 추신수는 9회말 수비 패전력 질주 후 마이크 주니노의 안타성 타구를 멋지게 걸어내 이날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자신의 이름을 단 이벤트 데이의 막판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